

인터넷에 소설 <출라체> 연재하는 박범신 작가 소설의 마당이 넓어져 다른 작가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길...

글_정윤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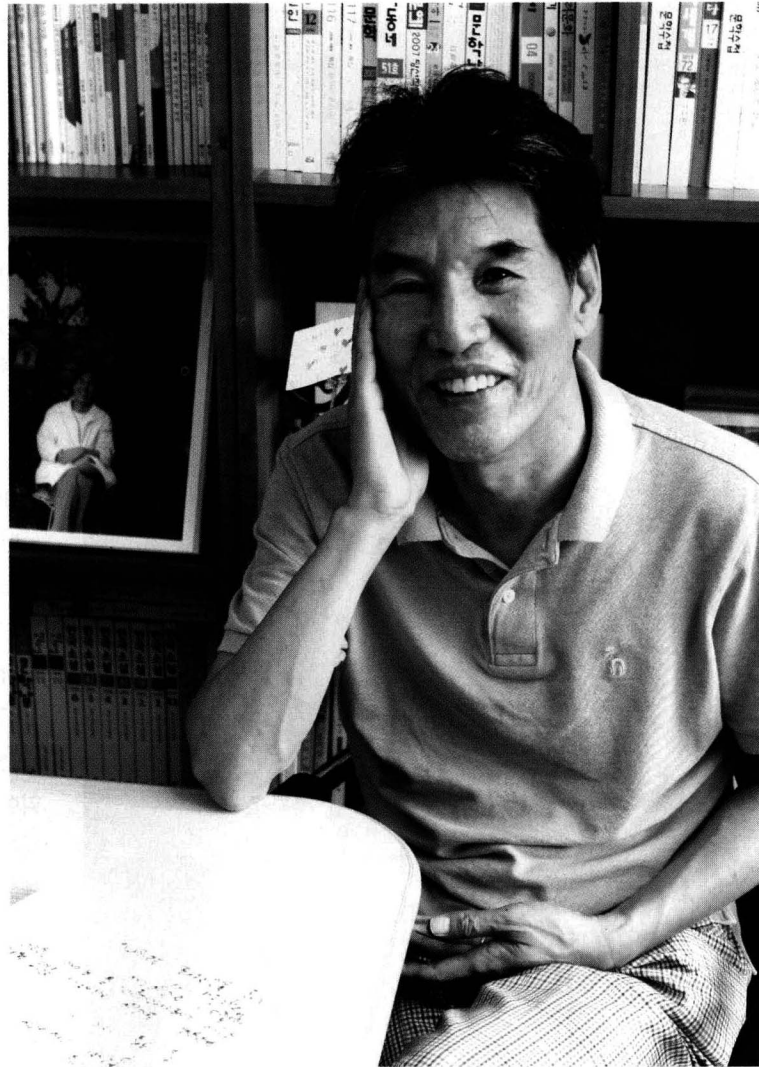
박범신(61) 작가는 아직도 200자 원고지에 글을 쓴다. 명지대 문예창작학과에서 소설창작을 가르치는 그의 연구실 책상에는 네이버에 연재하는 <출라체> 육필원고가 놓여 있었다. “육필로 글을 쓰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의 피부를 쓰다듬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작가는 요새 오른 팔이 빠질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10일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소설 <출라체>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개월간 연재하고 있다. 200자 원고지로 약 1천 매 분량이다. <출라체>는 2005년 1월에 히말라야 출라체(cholatse)에서 조난당한 산악인 박정현과 최강식 씨를 모티프로 한 작품이다. 작가는 히말라야 트래킹 여행기인 《비우니 향기롭다》에서 박정현과 최강식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이들이 사고가 나던 해에 마침 내팔 여행중이었다. “에베레스트 칼라파트르까지 혼자 걸어가는 중 출라체 밑에 있는 ‘두글라’ 라는 마을에 묵으면서 조난 소식을 듣고 출라체를 지나니까 죽음과 삶, 삶과 이별을 생각하게 되더라고... 꼭 소설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닌데 마음속에 각인이 된 모양이에요.”

<출라체>는 본격문학답게 클래식한 소설이다. 아마도 극적이고 독특 쓰는 재미를 바랐던 독자들이라면 인내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작가는 자기 방식을 고수하는 독재자”라고 말하는 그는 클릭수가 줄어들지라도 정통적인 소설 작법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출라체>의 주제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남자들의 이야기, 죽음과 맞닥뜨려야 하는 실존의 문제, 거세된 야성이 회복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이다. “남자들이 ‘쪼다’ 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인간이란 야성과 이성, 감성으로 사는 존재인데, 문명에 의해서 야성, 더 나아가 감성이 거세당했어요. 큰 역사의 소용돌이나 삶의 고비에서 정말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거세당한 야성이라고 보거든요. 문명사회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세된’, ‘불임의’ 삶으로 내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블로그 상의 ‘박범신과 대화하기’ 에 소설을 써가는 이면을 기록하고 있다. 소설 속에 소설 창작 과정을 노출시키는 ‘메타소설’ 은 아니지만 인터넷은 메타소설 형식을 빌려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연재를 시작하면서 많이 고려한 부분이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그렇다고 독자들의 댓글에 좌우로 치우치는 일은 결코 없다. 활발한 댓글 문화로 문학적 토론이 벌어지길 바라다며 오히려



야성 댓글로 인해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떠날까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그는 좌우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오로지 ‘문학 제일주의’ 와 ‘인간주의 이데올로기’ 만을 생각하며 소설을 써왔고, 그것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소설가이다. 문학과 인간은 우리를 눈물겹게 만든다. 인간 삶의 원형을 보여 줄 작가의 소망대로 <출라체>가 성공하길 바란다.

“소설 마당의 확장이라는 점, 인터넷 연재는 처음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다른 작가들에게도 기회가 많이 주어지길 바라죠.”